

창간 72주년에 부쳐

호남 언론의 종가(宗家), 광주일보가 창간 72주년을 맞습니다. 1952년 6·25의 초연(初演)이 채 가지지 않은 폐허 위에 '불편부당(不偏不黨)' '문화창달' '지역개발'이란 3대 사시(社是)를 기치로 달고 올린 광주일보는 지역 언론의 선구자이자 현대사의 증인으로 그 본분을 꿋꿋이 수행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일흔둘 성장(星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넘어야 했던 역사의 파고가 그만큼 거세고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일보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IMF 외환위기, 촛불혁명 등 현대사의 고비마다 격동의 현장에서 역사의 증인이자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슬한 도전과 역경에도 광주일보가 호남 대표 언론의 위상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창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광주일보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적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므로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고(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산물 등 전 분야 확산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가가 고착화되고 고급민 정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고유가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배럴당 100달러가 눈앞입니다. 3고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정책 대출로 버티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엔데믹 이후 고급민 대출로 같이탈 수밖에 없었는데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더디고 소비 침체까지 겹쳐 곳곳에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주며 범야권에 192석을 몰아줬습니다. 무능하고 불통의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소통과 협치의 정치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대안까지입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주지 않은 이유는

오라는 유연하지 않은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대 증원 문제를 풀고 동시에 필수로 분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수가 등 의료계의 요구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해 점점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만큼 이번 만큼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길 기대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에서는 전남권에 국립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현안입니다. 전남은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데도 광역단위 가운데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국립 의대 설립은 전남권의 30년 숙원입니다. 마침 정부가 전남권에 국립 의대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터라 이번에는 반드시 숙원을 풀

갈등 대신 전남도를 믿고 상생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과제는 호남정치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정치는 종속변수로 전락했습니다. "될 사람 밀어준다"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나온 것도 교육정책의 다름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은 지역구 민주당, 비례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광주 8개 지역구 가운데 한 곳만 빼고 현역을 모두 교체한 것도 21대 국회에서 호남정치를 복원하지 못하는데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남에선 3선에서 5선까지 대선 의원이 다수 22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국회 지

인데 무안군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관건입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주민들이 한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북향소풍물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벨 도시' 탈출의 방편인데 문제는 광전동 일대에 집중돼 있는 교통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직결된 문제로 교통문제 해결에 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개발이익금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활용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지역 현안 해결의 데다수는 정부 예산 확보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의 인공지는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고 전남은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과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확보입니다. 광양에 추진중인 국가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고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큰 틀에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구와 경제성 등 효율성만 따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예산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창간 이래 72년이 흘렀지만 광주일보 3대 사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 매체시대 까짜뉴스가 넘쳐나고 극단적인 평가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선 가치중립적인 '불편부당'한 언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이라는 사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해 온 광주일보가 앞으로 두 주도면 겸사해야 할 과제입니다. '문화창달'을 위해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공기(公器)가 되겠다는 72년 전의 초심을 되새기고 100년 역사를 향해 무뎠던 마음을 되새기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예정 어린 충고와 편담을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론직필로 지역민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축재정 정책만 고수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3대 경제 주체가운데 정부의 재정 역력이 가장 좋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정부도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문제도 정부의 재정 정책과 세금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파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다만 증원 수를 2000명으로 못하고 의료계에 대화의 장으로 나

어야 합니다. 다만 목포대와 순천대 두 곳에 의대 캠퍼스를 두는 '통합 의대'에 정부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학 한 곳에 의대를 설립할 것을 요구해 '단일 의대' 안을 내놓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남도가 중재에 나서 공모를 통해 단일 의대를 결정하겠다는 목포와 순천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목포와 순천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재된 갈등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 공정한 공모 관리와 조율 능력이 관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지역 이기주의를 조정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 후보들이 국립 의대 유치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도부는 대선 의원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대선과 총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지역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호남 전체를 보면서 힘을 합쳐 나가야 그나마 약화된 정치력을 복원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창제가 할 지역 현안으로 광주의 경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있습니다. 범야권이 절대다수인데다 여전히 긍정적인 사안이라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180석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만큼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더 중요한 과제는 균공함을 포함한 광주공화 이전 문제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등 3년간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첫번째 대안

無等鼓

'이 가슴스러운 주검을 보라!' 부산일보가 1960년 4월 12일 자로 보도했던 (故) 김주열 열사 주검 사진의 제목이다. 사진 아래에는 "1960년 3월 15일 행방불명된 김주열 열사가 같은 해 4월 11일 오전 11시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경찰의 잔인함이 세상에 폭로됐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1960년 3·15 마산의거에 참여했다가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 숨진 채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모습은 당시 부산일보 마산 주재 허중 기자가 최초로 촬영해 다음 날인 12일 특종 보도했다. 지금 보아도 섬뜩한 면이 있는 이 보도는 AP통신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됐고,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촉발해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신문 한 부

러린 뒤 5월 21일부터 10일 동안 두 신문의 발행이 중단되면서 호남 언론의 기능은 전편 마비됐다. 위의 두 사례는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기사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 신문이라는 한계를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19 혁명 기념일과 4월 20일 광주일보 창간 72돌을 앞두고 기자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신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글귀들이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도로 위 지뢰' 포트홀 관리 대책 마련 시급

도로 위의 지뢰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급증한 포트홀로 운전을 하는 매일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린다. 운전자들은 포트홀 구멍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서 옆 차랑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겪는다. 올 겨울 광주에서는 포트홀 1만곳이 넘게 생겼고, 전남에서도 지난해보다 3배가 넘는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까지 맞물리면서 시내 도로 주행 시 피로도와 불안감이 더 커졌다. 날이 풀리면서 포트홀 발생 위험도 커졌지만 여전히 훼손된 도로가 많다. 복구되지 않고 방치된 구덩들과 흡사 누더기처럼 임시 방편으로 덮은 구덩들을 털거러야 넘나들고 있다. 포트홀로 타이어 파손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등 사고 지점에 따라 피해 보상 신청 접수처가 다르다. 이처럼 여러 불편을 초래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광주시의 도로유지 예산에 102억이 책정됐다. 하지만 도로 보수에 쓰이는 예산은 절반에 못 미치고, 그마저도 포트홀 보수에 전부 쓰이지 못한다고 한다. 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광주시와 국회의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철 공사과 더불어 운전하기 힘들어진 광주 시내. 운전자들의 불안이 더 커지지 않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도로 보수 등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 순찰과 도로 관리가 시급하다. ▲이하영·광주시 북구 두암동·플로리스트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첫 만남의 기억, 모악산의 점현호색

식물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가장 바쁜 계절은 바로 봄이다. 이른 봄 복수초와 갯꿩풀, 알레지, 히어리 등이 이어 잔빛나뭇과 울퉁나뭇 그리고 지금은 동이나 물과 피나물이 연이어 숲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요즘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산과 수목원을 헤맨다. 아침에 꽃봉오리를 맺던 식물이 오후가 되면 꽃을 피우고, 어제 꽃을 만개하던 식물이 오늘 꽃잎이 떨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지금 당장 식물을 보러 나가야 할 수 없는 것이다.

해가 뜨면 밖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해가 지면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몇 주째 지속하고 있다. 이때마다 지인들로부터 식물 이름을 묻는 연락도 자주 받는다. 대체로 봄꽃을 마주한 사람들이 내게 본인 이 찍은 식물 사진을 보여주며 이름을 묻고, 나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하고 한다. 그런데 자주 나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사진 속 식물이 있다. 그것은 현호색이다.

4월이면 현호색은 숲과 들 가릴 것 없이 꽃을 만발한다. 보라색, 흰색, 파란색 꽃들이 부수지기 직전의 건조한 낙엽 틈새를 비집고 나온다. 현호색은 종명이기도 하지만 현호색속 식물을 총칭하기도 한다. 현호색속에는 전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여 종이 분포한다. 이 중 10여 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국 특산식물이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식물군인 셈이다. 현호색이 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변이가 다양

하다는 데에 있다. 같은 종일지라도 잎 형태와 꽃색 등이 다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는 종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확신이 들어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식물세밀화는 식물의 총 특징을 드러내는 기록물이다. 현호색속은 형태와 색에 있어 다양성을 지닌 식물이란 점에서 이들을 그리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현호색속에는 선현호색, 남도현호색, 왜현호색, 점현호색, 갈귀현호색, 조선현호색, 들현호색, 날개현호색, 각시현호색, 섬현호색 등이 있다.

4년여 전 이때때의 계절, 전북 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식물세밀화 강의를 마친 다음날 미리 준비해간 등산복을 입고 근처 모악산에 올랐다. 한참동안 산을 오르던 중 눈앞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기엔 향과 하늘빛 꽃을 피운 현호색이었다. 20cm 가 채 되지 않는 키에 잎에는 짙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점현호색이었다. 어두운 흑갈색 땅에서 피어난 청명한 푸른빛의 꽃. 이들을 발견한 기분은 마치 일본에서 히말라야푸른양귀비를 처음 보았을 때와 같았다.

식물에게서 볼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한 색. 인간이 염색하고 잉크를 주입하여 푸른빛을 띠던 꽃 시장 튜립의 존재가 무색하게도, 이들은 자연적인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날 모악산에서 다양한 꽃들을 만났지만 어찌런 현

호색 푸른 광채의 황홀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7년 전에는 한 방송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나물로 이용되는 식물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내게 식물세밀화를 그려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야생화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제안을 수락하였고, 그때 내가 그림 그려야 할 목록에는 어김없이 현호색이 있었다. 그해 나는 현호색의 뿌리부터 관찰하였다. 현호색은 덩이줄기를 갖고 있다. 이것은 구형이고 색이 희다. 그림을 다 그리고 채취해두었던 덩이줄기를 제자리에 다시 심어주었다니 푸른 꽃을 피웠다. 나는 그들의 개화와 결실까지 관찰하여 그림을 완성했다.

현호색의 덩이줄기는 생약으로도 이용된다. 대표적인 소화제 가스활명수에도 현호색이 주원료로 포함되어 있다. 현호색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던 셈이다.

며칠 전 우리 동네 경기 남양주의 천마산에 올랐다. 산을 오르며 나는 평의바람꽃과 큰광야바, 알레지, 노루귀 등을 만났다. 그리고 모악산에서 만났던 그 점현호색도 만났다. 현호색을 식별하기란 언제나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단번에 이들이 점현호색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악산에서 만난 것과 같은 형태의 잎 무늬와 꽃색을 지녔다.

첫인상이 유독 오래 기억에 남는 존재가 있다. 내겐 점현호색이 그런 상대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현대 문명질환 경향통(목 통증)



박정열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경향통은 목의 전후좌우에 발생한 통증을 말한다.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누르면 아프고, 목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어깨나 상지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다.

경향통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기간의 연수(Year Lived with Disability, YLD) 상위 20개의 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한다. 경향통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

대인에게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예방과 치료, 관리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이자 현대 문명질환이다.

경향통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자세 등이다. 치료 후에도 생활습관과 자세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 재발하거나 만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목이나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 는 경우 현대의학에서는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를 하거나 심부열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행한다.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많은 환자가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이며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높이에서 모니터를 보고, 고개 숙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통증으로 나타난다. 또한 너무 높은 위치의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도 목과 어깨에 부담을 많이 준다. 특히 최근 많이 사용하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목을 숙여 전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장기간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세보다 목과 어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목 또는 목과 어깨의 통증을 장기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적인 치료 수단인 침, 약침, 사혈, 추나 등의 치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는 환자라 그렇지 못한 환자가 나온다. 이중 거북목, 일자목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난 환자들은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통증과 불편함이 있는 경우 최대한 치료·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좀 더 젊은 나이에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효과가 양호한 편이며, 젊은 환자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다소간 있더라도 호전의 여지가 더 크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너무 장기간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수시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나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을 막고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